

성신강림 대축일

기도서 305 면(B해)

제1독서 : 사 도 2,1-11

제2독서 : 1 고린 12,3b-7.12-13

복 음 : 요 한 20,19-23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요한 20,22b-23a)

□ 감 론



오소서 성신이어!

성 민 호 신부

오늘은 4대축일 중의 하나인 성신강림 대축일이며 또한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교회 창립일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사도들에게 충만한 능력을 주신 성령을 기리면서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성신이어!>를 외칩니다.

하느님께서 보잘것 없는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의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그분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으며 마침내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약속하신대로 진리와 사랑, 위로와 능력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오늘 사도행전이 전하듯이 그야말로 돌변하여 허약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하였읍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는 자신있게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고백하였으며 성령을 받아야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읍니다. 하기가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 천주성에 참여할 수 있고 영적인 진보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신강림을 지난날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념해서는 안되고 교회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관심하였읍니다. 마치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인간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같은 성령의 열매, 즉 사랑, 기쁨, 평화, 신행, 진실, 은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도들처럼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려는 강력한 충동을 느껴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시던 날, 세찬 바람과 함께 혀의 형상으로 된 불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할을 함축성있게 잘 나타내는 장면이었읍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진리와 허위를 구별하는 힘을 주실뿐 아니라 메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불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신과 불복, 미움과 싸움, 거짓과 무관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와 사랑 그리고 일치와 성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진정으로 성령의 사도가 되어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고 사랑의 불을 놓읍시다.
(중앙성당 주임신부)



오소서 성신이어!

사건 1. 지난 5월 15일 문정현 신부님이 불법으로 강제납치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백주에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서 당했다. 문신부님은 이에 7일간의 단식으로 항의했다.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와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모종의 대책을 논의했고.

사건 2. 무고한 시민이 대낮에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유인즉 지난 5월 18일 오후에 관통로 근처를 지나 갔다고 해서다. 현직 교도학교 교사인 피해자는 주민등록증과 의료보험카드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그것은 허사였다. 그는 대기중인 모 회사 버스에 내던져지고 사복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이다. 급기야 경찰서에 끌려가 다섯 시간 여에 걸친 실랑이끝에 '대학생인 줄로 잘못 알아서 그리 되었다'는 어정쩡한 말을 듣고 풀려났다. 그러면 대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는 폭행당한 역할함을 책임자(과장)에게 호소했지만,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지 뭇때문에 돌아다니냐"는 핀잔만을 들었다고 한다. 그때가 퇴근시간인데도. 이게 어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사건 3. 지난 5월 19일에는 전주 남문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의 「광주 민중항쟁 5주년 기념예배」가 있었다. 이들은 예배후 광주사건의 진상규명, 부상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에 들어갔다. 그런데 평화적 시위에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던 목사님들이 그만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백윤석·은명기 두 목사님은 전북노회를 대표한 원로이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민주국가에서!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시달려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실정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 오소서 성신이어, 이 땅위에.

순정이 산책



잘들
는다
.....

문 정현 신부 불법납치 항의, 21일 현재 7일째 단식

정부 당국은 광주 민주항쟁 5주년을 앞두고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과 청년단체 간부들을 연행, 체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재야 민주단체의 지도급 인사들과 종교단체 인사들에 대해서도 납치 및 가택연금을 시키거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1985년 5월 14일부터 문 정현 신부가 사목하고 있는 천주교 전주교구 장계성당 주위에는 수명의 정보기관원이 감시를 시작하였다.

문신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자 인근에 감시 외출을 하려고 5월 15일 오전 9시경 교회 직원에게 오전 11시 반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승용차로 성당 정문을 나서서 가는 도중 경찰 순찰차와 전북1나 2254호 스텔라 승용차, 전북1가 5244호 포니 승용차 등의 제지를 받고 타고있던 차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스텔라 차량에 탑승 납치되었다.

그들은 문신부의 말을 무조건 묵살하고 88고속도로를 따라 대구쪽으로 질주하는 동안 소변을 보는 일도 금지시키는 등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유린하였다. 문신부를 강제 납치한 경찰은 대구, 경주, 포항, 영덕, 백암은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차를 정지시키고 상당시간을 지체하다가 문신부의 주장대로 광주에 가려는 것이 아니었음이 맞는 말 같라며 일방적으로 다시 16일 새벽 1시 장계성당에 되돌아가서야 억류를 풀었다.

문신부에 대한 이와같은 불법 납치 행위는 5월 17일 광주에서 있는 5·18 광주의거 추모미사의 참석을 제지하기 위함에 있다.

5월 14일부터 경찰이 문신부에게 가했던 행위는 첫째, 장계성당 신자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었고 둘째, 광주기도회에 참석하는 길이라는 것이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셋째, 설사 광주기도회에 참석하는 길일지라도 이를 제지함은 엄연히 종교탄압 행위이며 넷째, 인근장소 연행이 아닌 생면부지의 먼 곳까지 강제 연행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에 문신부는 납치되어 가는 도중 단식을 선언하였는데 전북 경찰과 전북 안전기획부 책임자가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

경찰의 특정 기념일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일찌기 잔인한 일제와 유신독재 시대에 있었던 악몽과도 같은 인권탄압 사례의 재현이다.

민주단체 및 종교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류처분과 연행사태, 연금사태 등 모든 정치탄압이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그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1일 오후, 도 경찰국장, 도 안전기획부 실장이 문신부님과 주교님을 직접 방문,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공식 사과를 했음.

백신전문메이커

한백약품 호남사업소

일본뇌염백신·간염백신·경구용장티푸스·파나톡스

전주 3-0773

광주 66-5389

박 윤 규(안 당)

밝은 눈, 맑은 눈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오로 서원 옆

☎ 72-5770

김 홍 균(베드로)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卍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 3668

자택 ㉠ 8120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애 창설 제3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참가하여 사랑을 증거합시다

□레지오 마리애는 1921년 9월 7일 에이레 더블린에서 토휘란신부님의 지도로 15명의 젊은 여성과 젊은 공무원 프랑크 더프씨로 구성되어 '자비의 모후'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계 1,500개 이상 교구에서 40개 국어로 교본을 발행, 행동단원 150만명으로 중공에서는 4,000여 명의 레지오단원 순교자를 내고 교회를 사수하며 날로 발전해가는 단체로써 세계 평신도 사도직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한국 레지오 마리애 창단은 1953년 5월 31일 전남 목포 산정동 본당에서 당시 광주 교구장 서리었던 현 하롤드 신부에 의해 '치명자의 모후' 브레시디움으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1956년 8월 7일 광주에 한국 최초로 꾸리아(지방평의회)가 설립되어 같은 해 12월 6일 꼬미씨움(교구평의회)으로 승격 되었으며 1958년 7월 13일 한국 세나투스(국가 최상급 평의회)로 승격되었고 한국 레지오 창단 25주년이 되는 1978년에는 서울에 '무염시대' 세나투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전주교구 레지오 창단은 1955년 5월 전동본당에 강윤식(분도) 신부님의 지도로 '치명자의 모후' 브레시디움(단장 유희진, 시몬)을 효시로 시작되었으며 1955년 7월 25일 전동본당에 '매피의 모후' 브레시디움(단장 김마리아)이 설립되고, 1957년 9월 전동본당에 파티마의 모후 꾸리아 설립, 1958년에 꼬미씨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71년 10월 성신여중교 교정에서 세계 레지오 마리애 창단 5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 바 있고 1981년 5월 23일 해성중교 강당에서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애 창단 25주년 경축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전주교구 레지오는 39개 꾸리아와 473개의 브레시디움에 10,937명의 단원(행동단원 6,472명, 협조단원 4,465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이와같은 발전을 하도록 영육간의 지도와 도움을 주신 주교님과 신부님, 수녀님께 충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 사랑의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육화되어 십자가상의 죽음과 최후찬으로 이 시간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거행되는 미사성체를 통하여 당신의 육신(살과 피)과 영혼과 성령을 거쳐 주심으로써 사람이 무엇인지를 웅변으로 증거하신 주님께서는 5월 27일 우리를 만나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이란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있지 않고 사랑은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레지오의 목표인 성화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첫째가는 우선권으로 3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 참석하여 30세 된 성년 레지오로써 10만 도인 복음화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랑을 증거합시다. (파티마의 모후 꼬미씨움 단장 채 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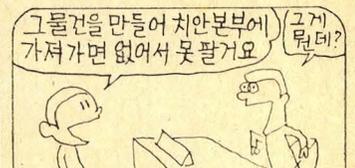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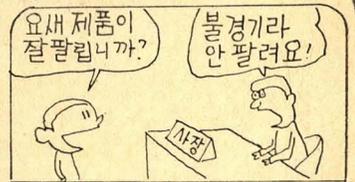
때 : 1985년 5월 27일(월) 10시30분~16시

곳 : 전주 실내체육관

참석대상 : 레지오 마리애 단원 및 레지오를 찬동하는 모든 교우

- 행사내용
- 1부-경축 미사 : 10시30분~12시
 - 2부-경축 기념식 : 12시~12시30분
 - 3부-경축 행사 : 1시~4시

요심이 (616) 김병오



영지·영지·영지!

최고의 건강식품 불노초
영지 버섯

- *직접 생산하여 저렴하게 보급합니다.
- *재배방법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합니다.
- *연락 주시면 안내서 보내 드립니다.

월성 영지 농장

최택승(날시스)
강영순(제노베파)
이리 ☎4773 · ☎8953
이리시 월성동 403
(성글라라 봉쇄수녀원 앞)

코오롱 MANSTAR 맨스타 전주특약점

코오롱 모드
자신감으로 나선 거리 맨스타
돌보이는 남성의 품위 맨스타
주: 김 아드리야노
전주시 중앙동 3가 26-1 ☎ 8415
(전북은행 중부지점 앞)

개업 1주년 기념 사은대특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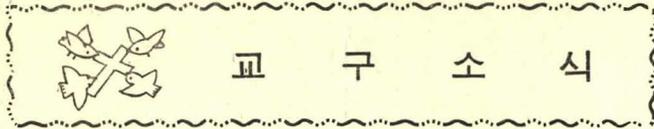
기간: 4. 28~5. 27

- 사은품 증정
- ①파카 크리스탈잔 세트
 - ②나이키 신발·나이키 등산복용 팩·나이키 스포츠웨어
 - ③냉장고용 삼단 팩

삼성전자 중부대리점

중앙시장 육교 옆(4-4314, 74-5161)
김(빈첸시오)·윤(엘리사벳)

(4) 순 정 이



- ☆ 전주교구 레지오 창설 30주년 경축대회 개최 : 3면 참조
- ☆ 제1지구 어린이 신앙대회 : 5월 26일(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소-해성학교 강당
행사내용-성가경연대회, 교사 어린이 장기자랑, 마당굿 등. ※ 어린이, 학부모님들 많은 참석 바람
- ☆ 축! 건진 : 파티마 천주교회-6월 2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
- 1. 빈첸시오회 1일 찾집 : 26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소-가톨릭 센타 휴게실
- 2. 대학생 주일(탈출 강승) : 일시-5월 26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타
- 3. 1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 일시-5월 27일, 장소-해성고등학교
- 4. 여성 19차 꾸르실료 : 마나니마 27일(월) 새벽 4시, 꾸라으스라 5시
- 5. 교구 혼인법원 :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 6. 소년 꾸리아 창립 2주년 1일 피정 : 85년 6월 2일 9시30분~5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준비물-묵주, 성가책, 미사포 각 뷔레시디움 별로 도시락지참, 대상-전주·이리지구 전 뷔레시디움 단원
- 7. ①전주 시민강좌 : 5월 28일(화) 저녁 8시, 장소-중앙성당 제목-동학혁명의 역사적 재조명, 연사-송기숙 교수
②이리 시민강좌 : 일시-5월 29일(수) 저녁 8시, 장소-이리 주현동성당
제목-외재, 이대로 좋은가?, 연사-임제경 선생
- 8. 베텔성서 전편 졸업식 : 29일 오후 7시
- 9. 제 8기 예비자반 모집 : 5월 31일(금) 오후 7시30분, 가톨릭 센타, 접수처-교구청 교육국(☎ 0041~3)
- 10. 뉘스제 : 6월 2일 오전 9시30분-오후 8시, 프로그램-성경시험(모세오경, 교회상식),
건진가요제(개인·중창), 자격-교구내 전대학생 신자, 예비신자, 각 성당 또는 각 단위에 소속한 사람
접수-5월 26일까지, 토요일·일요일은 오후 2시~6시, 대학생연합회 사무실, 교구청 교육국
- 11. 수녀님들을 위한 영성피정 및 총회 : 일시-6월 3일(월) 오전 10시30분~오후 5시30분
출발-오전 9시30분, 가톨릭 센타에서(시간 엄수 바람), 내장산 도착시간-오전 10시30분, 참가비-2천원
- 12. 성체 분배권 수여 : 지난 18일 33분의 수녀님들께 성체 분배권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 13. 춘계 주교회의 : 5월 28일~6월 1일, 많은 기도 바랍니다
- 14. 이순성 신부님 주소 변경 : Rev. Peter RHEE

Eikstraats 11. 3000 Leuven. Belgium

전주시 중노송동 2가 361-3

주임신부 김 용 태
보좌신부 김 의 철
사도회장 이 흥 재

노 송 동
천 주 교 회

사 제 관 ☎ 0 9 6 9
수 녀 원 ☎ 7 0 3 2
사 무 실 ☎ 7 0 3 2

- ◎ 미사시간 안내
월-오전 5시30분
화-오전 10시30분 · 오후 7시30분
수-오전 5시30분 · 오후 7시30분
목-오후 7시30분
금-오전 5시30분 · 오후 7시(젊은미사)
토-오전 5시30분 · 오후 4시(특전미사)
일-오전 5시30분 · 10시30분 · 오후 3시 · 6시
- ◎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직장인-매주<화> 저녁 8시
부녀반-매주<수> 오전 10시
- 1. 축! 영세식 : 오늘 공시미사중에 새로운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 2. 예비자 입교식 : 6월 9일 공시미사중에 각 구역과 단체에서는 예비자를 안내합니다
- 3. 구역 봉사자 모임 및 대의원 월례회의
6월 1일 저녁 8시,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 4. 레지오 30주년 경축대회
27일 9시 30분까지 성당에 모여주세요
- 5. 여성 제19차 꾸르실료··24일~27일까지
본당참가자-박명진·한현실·이승임
많은 기도와 빨랑카를 보냅니다
- 6. 감사합니다 : 성모의 밤 행사에 협조해 주신 단체와 개인들께 감사드립니다
- 7. 분재 강의 계속 : 앞으로 2주동안 매주 공식미사 후 지금까지 수강하신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8. 교무금을 납부합니다 : 교회(주님)와 약속하신 교무금 밀리지 않도록합니다
- 9. 공소 순회미사 : 6월 1일 저녁 8시, 신교리공소
- 10. 금주의 전례담당 : 제4조, 차주는 제1조가 담당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 11. 축! 혼인미사 : 다음주 12시
신랑-김종문(바로로) 군, 신부-설갑순 양
- 지난주 봉헌금 : 374,590원 교무금 : 177,300원
지난주 신축기금 : 365,000원

우 리 의 입 장

우리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커다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사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며 정치윤리의 부재로 정치적 상황이 물흐르듯이 순리적으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광주·의거 5주년을 전후한 이 지역에서의 문제들만 보아도 그렇다. 문정현 신부 등에 대한 강제납치(5월 15일), 대학생들의 이윽기는 의사표시에 대한 당국의 폭력(5월 16일-18일), 관동도로변에서의 무고한 시민에 대한 폭행(5월 18일), 남문교회에서 있었던 평화적 시위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의 회장 백운석 목사와 증경 총회장 은 명기 목사 등에 대한 폭행(5월 19일) - 이러한 사태들을 한국적인 불행한 현실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최근에 난무하는 폭력은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불안감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대국적인 면에서 안정이 필요함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안정에 진정한 민주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틀에 맞추는 것이라면 이는 영혼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인 저쪽의 체제와 다를 바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시대에 요청되는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 기독교의 역할을 더 이상 용공시해서는 안된다. 이제 공산주의와 가장 힘있게 맞설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사명을 절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광주·의거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5년전에 밝힌 당국의 발표나 최근의 민정당 대표위원의 발표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에 악순환이 되풀이됨을 명심하라.)
2. 더 이상 폭력정치는 없어야 하고, 폭력을 지휘한 책임자에게는 응분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총화를 해치는 요소가 바로 이 폭력정치에 있음과 폭력이 폭력을 불러일으킴을 직시하라.)
3.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앞으로의 사태를 주시하며 인권유린 등의 비민주적인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일을 계속할 것이다.

1985년 5월 21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